추석명절 가정예배안

1. 추석명절 가정예배 순서

묵　　도 ……다같이 묵도하면서 추석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84장(통434장) …… 다　같　이

1.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　　도 …… 가　족　중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부끄럼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는 언제나 칭찬과 본이 되며 예수님의 증인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도 영생을 위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수24:14-18(구p.357) …… 인　도　자

14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설　　교 ……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복한 가정 …… 인　도　자

찬　　송 …… 559장(통305장) …… 다　같　이

1.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복과 다짐 …… 가족과 함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권면하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2. 설교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가위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가위처럼 좋은 날이 계속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만끽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경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복된 삶을 위해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여호수아는 '옛적에'(2절)란 말을 쓰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옛적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은혜 넘치는 가정이 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둘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14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와 순종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건, 지식의 깨달음, 물질에 대한 욕망의 성취 등 이런 것들은 거짓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순수한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가정은 낙심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잠언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15:13)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15절). 이런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오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굳건함은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언제나 즐겁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뻐하겠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